

영국 귀족의 딸이 된 교부
14살의 귀족의 딸이 된 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그러면 8절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는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구절은 마치 친구라는 관계만 생각한다면 귀찮게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간청하기 때문에, 즉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는 말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이 바탕이 된 해석일 뿐이다. 아니 해석이라고도 할 수 없고 단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인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만들어 내는 수준일 뿐이다.

좋은 친구라면 친구라는 관계를 소중히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청해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친구라는 관계를 무시하고 다만 간청하는 것을 못 이겨서 주는 이 사람은 어쨌든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 된다. 때문에 단지 간청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벗이라는 것은 육신적 인간관계다. 따라서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는 것은 육신적 인간관계만 생각한다면 일어나 주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 사실 벗이라는 인간관계에서 생각한다면 떡을 빌리는 벗의 요구를 거절해도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빌리는 벗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모두가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간에 찾아와 괴롭게 하는 것이 예의 없는 것일 수 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육신적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육신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기

기의 정성과, 열심과, 의지 등등을 동원하여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 ‘하면 된다’ 는 것을 기도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된다.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말한다.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을 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 벗이 문도 닫았고 이미 잠자리에 누웠으니 줄 수가 없다며 거절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친구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는 의미가 아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구절로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친구라는 관계를 떠나서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당한 명분이 있는 요구다. 그리고 그 정당한 명분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규례 아래 있는 사람에게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 떡을 빌리는 것이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 떡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유대 사회에서는 비난 받을 행동이 되는 것이다.

벗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고 한다. 개역개정에는 ‘간청’ 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한글에는 ‘강청’ 으로 되어 있다. 간청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의미고, 강청은 강하게 요청하는 의미로서 당당함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보다는 강청이라는 단어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떡을 빌리는 친구의 태도에는 당당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일낮 설교



변형되신 예수님 마 17:1-8

◎ 베드로의 체험 ◎

사람은 경치 좋은 곳이나 화려한 곳을 가면 별천지라고 감탄을 하면서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치 좋고 화려한 곳에서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경치가 좋다는 자연적 조건이나 화려한 집이라는 주거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그러한 곳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산다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집착을 하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4절)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경치 좋은 곳을 보면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아예 거기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주변 환경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주변 환경까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환상적인 곳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형된 예수님을 봤을 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적인 인물로 대접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거기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변형사건은 별천지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한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됨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한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신기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체험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인생의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영광의 세계 ◎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놀랍고 신비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수많은 능력을 보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던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무덤이 없는 신비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등장하여 변형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에게는 신비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면서 마지막에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라라고 약속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역시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이 함께 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한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거기고 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변형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은 오직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의 세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처럼 다른 영광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만 육신의 세상에서 풍

마태데스 2010-43

오로운 인생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현한 세상에도 마음이 당기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얘깃거리로만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그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6:24-26절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무척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모릅니다. 오히려 장래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해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찾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6:27 절)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8절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는 말씀도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길을 가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 때문도 아니고 사상 때문도 아니며 이념 때문도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세상보다 더 영광되고 찬란한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잃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참된 생명을 찾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에게 임할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제자 셋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모두가 아니고 셋일까요? 그것은 신 19:15절의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

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되는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대사회에서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세계를 증거할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해서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장차 이루어질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세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 어떤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십자가를 알기 전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상은 실제 하지 않은 상상의 세계일 뿐이고, 따라서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내고 욕망이 세워가는 거짓된 세계일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형된 예수님, 즉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봄으로써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세계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 더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나”**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베드로를 위해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결코 낙심하고 절망스런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변형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 그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를 추억 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감을 뜻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과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오직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형되었던 모습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모두 거짓된 환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같은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만큼 좋았던 영광의 세계보다 더 영광된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자가 보게 되는 것은 영광된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참된 세상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매일 수박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기 때문이고, 결국 세상에만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영광된 세계에 대해 증거를 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관심 밖일 뿐이고 육신의 영광을 누리는 세상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말씀은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남게 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말씀 안에서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영광은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사도의 기원

살전 5:23-28

(19강 9.26일 설교)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인생과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과연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예수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잘된 인생, 예수 안에서 잘된 자식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간 나사로와 지옥 간 부자 중 그 인생이 잘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사로가 잘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로 비참하게 살았던 세상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분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잘된 인생길을 갔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도 거짓로 산 인생을 잘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잘 살아야지 거짓이 뭐냐? 는 조롱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시각과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3절)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사도의 기도이고 간절한 소망이며 기원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기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이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복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너희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고' 라는 기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내 뺏는 기원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원을 합니다. 거룩함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전되는 것이 사도의 기원이며 관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말씀에 종속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또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끝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이고, 결국 원하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받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고, 피가 제공하는 하늘의 복된 것보다는 돈을 이루어지고 돈으로 사는 세상의 복된 인생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거룩과 주가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의 기원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다가옵니까? 사도의 기원은 분명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의 말에 대해서 ‘그게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라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사도와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형제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관계입니다.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느냐’ 가 교회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사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승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말씀 밖으로 멀리 도망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성도를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출세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끝이 있고 주의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바라봅니다. 때문에 거룩과 흠없이 보전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에 의해 거룩된 자로 서게 되고, 주가 강림하셨을 때 흠없는 자로 보전되어 주를 맞이하는 것이 사도에게는 최고의 복일뿐입니다. 사도와 같은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장악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곧 평강이다’ 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곧 평강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세상 문제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므로,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도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평강이 있는 신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위 삼분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는 인간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헬라철학 사고입니다. 즉 헬라적 사고에서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당시 헬라적 사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전부를 의미하는 말로 영과 혼과 몸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존재가 파악될 뿐입니다. 만약 인간을 독립적 개체로 간주한다면 아무리 분석해도 영과 육, 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는 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오직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육일뿐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야 말로 흠없이 보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없이 보전된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헛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일컬음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흠없이 보전되기 원한다는 것은,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때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주의 강림하실 때 흠없는 자로 보전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는 분명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세상에 속한 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자입니다.

수요일 설교



자비하신 하나님

마 7:14-20

(13장 10.13일 설교)

신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믿음의 가치를 안다고 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파악한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에 이

미 참여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복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항상 세상의 가진 자 앞에서 주눅 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 앞에 선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면 그것은 야곱이 복을 누린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은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나그네였고, 바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왕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입장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복에 대한 야곱의 시각이 압복강에서 씨름을 하기 전이라면 바로 권세 앞에서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압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야곱의 눈에 바로는 부러움의 대상도, 복을 누리는 자도 아닌 예전의 자신처럼 복을 알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할 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당당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참 복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자는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힘 있는 자 앞에서 주눅 들어 삽니다.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보다 높아진 자들을 시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나약함입니다. 이 나약함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신자는 현재의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해서 이미 복 있는 자로 증거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는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앞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라”** 고 말합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을 살게 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고통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둠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들을 일으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4,15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하고, 목자의 지팡이는 자신의 양을 이리와 같은 맹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의 양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홀로 감람 속 삼림에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 처한 환경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람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것과 같이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의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빛이 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승자이고 잃는 자는 패자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패자 위에 서는 것이 법칙이지만 이같은 법칙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승자든 패자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고통에 처하게 된 것은 이방인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은 하나님의 일이 보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승리에 도취되고 자신보다 나약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6,17절에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되어질 일인데 그런데도 지금의 자기 인생이 초라하

다 하여 낙심할 수 있었습니까? 낙심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믿음 없는 시각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까?” 라는 의심이 있다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이 마땅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20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람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는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람에게는 성실을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아람도 아브라함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남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신 결과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비참함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안다는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세상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 됨이 있습니까?

신자의 눈에는 돈 없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지 못한 것이 초라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신자의 부요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죽는 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게 복이 넘칩니다’ 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분량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소원으로 살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40장
교 독 문	41(시97)
기 도	이성의 장로
찬 송	380장
성경봉독	마 17:1-8
설교제목	변영되신 예수님(110장)
기 도	설 교 짜
찬 송	391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1장
축 도	설 교 짜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찬 송	
기 도	
찬 송	
성경봉독	
설교제목	
기 도	
찬 송	
주기도문	

다음주기도 : 장영대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나눔 강애(2강)

내 자신에게는

신윤식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억울하여
밤새 속병 앓는
아픈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말자

최소한
내 자신에게는
속이지도 속지도 말자.

그것은
끔찍한 일이니까요

교회소식

1.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찬송 퀴즈대회 관계로 동대구교 회당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시간은 2:30분입니다.
2. 오후 성경공부는 없습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